



# 중국의 ★ 미래 권력 전망

홍인표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연구교수

# 목차

제 1부      시진핑 시대 평가

제 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제 3부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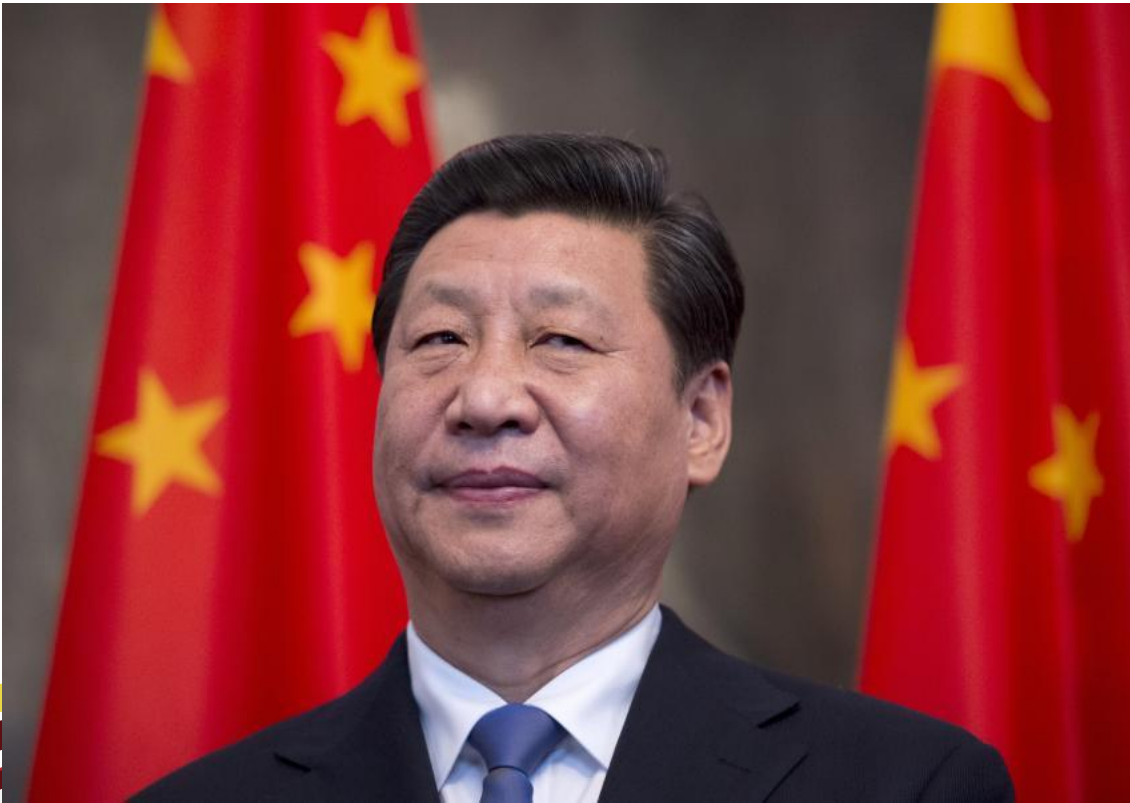
## 제 1부

# 시진핑 시대 평가



#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1. 시진핑은 누구인가



#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1. 시진핑은 누구인가

- 1953년 6월 베이징 출생

아버지 시중원(1913~2002. 당시 중앙선전부장, 정무원 문교위원회 부주임) , 어머니 치신(1926~) 팔로군 전사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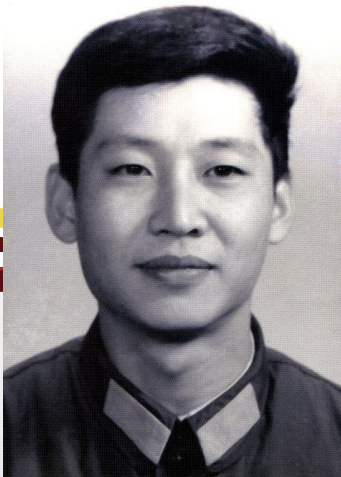
- 1962년 아버지 실각으로 집안 풍비박산  
문화혁명으로 산시성 옌촨에서 노동





#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1975년 칭화대 화공과 입학(농공병 학생), 농촌 탈출에 성공첫 직장은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 경바오의 비서
- 1983년 허베이성 정딩현 부서기로 지방 생활 시작
- 이후 2007년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까지 지방서 생활(푸젠성, 저장성, 상하이)



#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누나 차오차오(1949~)는 부동산 개발업. 2007년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이후 태자당 가문과의 연락책.
- 두번째 부인 평리위안(1962~)은 시진핑의 비밀병기(상하이방 지원을 얻어낸 역할)



#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2. 시진핑 집권 5년 성과

- 2012년 제18차 중국 공산당 대회

-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시진핑 당시 국가 부주석 선출

- 당정군의 1인자로서 조기 당 장악 성공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청사진 제시) 시진핑 시대 개막

### 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





#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중앙 소조를 통한 집권 강화

집권 초기 중앙심개소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만들어 당 중앙위원회가 통괄 지휘

- 문화혁명 이후 최대의 반부패 정풍운동 (호랑이도 파리도 잡겠다)

- 대대적인 군대개혁 단행 (인민해방군 4대 총부 해체. 지역별 전구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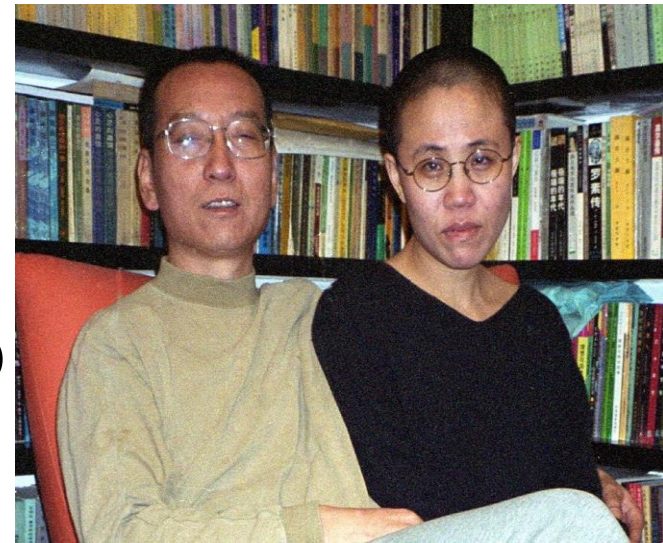
- 외교 무대 위상 제고 (경제력에 힘입어 할 말은 한다. 남중국해 패권 놓고 미국과 대결)



#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3. 시진핑 집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 물거품으로 끝난 정치개혁, 정치자유화에 대한 기대감  
(마르크스주의 신봉자.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
- 철저한 인터넷 통제 (유튜브 금지)
-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탄압  
(중국 사람들은 류사오보가 누구인지 모른다)



#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학문의 자유 통제

(말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글쓰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 갈수록 심각해진 사회 양극화

(지니계수 0.61.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양극화 수준)

- 주변국과의 잦은 마찰

(중국 사람들의 민족주의에 힘입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4. 시진핑의 통치 스타일

- 상하이 학자들의 시진핑 평가  
(2009년 위클리크스 문서.  
상하이 학자들과 당시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와의 대화)

1. (C) According to a well connected Embassy contact,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Member and Vice President Xi Jinping is "exceptionally ambitious," confident and focused, and has had his "eye on the prize" from early adulthood. Unlike many youth who "made up for lost time by having fun"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Xi "chose to survive by becoming redder than the red." He joined the Party and began mapping out a career plan that would take him to the top of the system. In our contact's view, Xi is supremely pragmatic and a realist, driven not by ideology but by a combination of ambition and "self-protection." Xi is a true "elitist" at heart, according to our contact, believing that rule by a dedicated and committed Communist Party leadership is the key to enduring social stability and national strength. The most permanent influences shaping Xi's worldview were his "princeling" pedigree and formative years growing up with families of first-generation CCP revolutionaries in Beijing's exclusive residential compounds. Our contact is convinced that Xi has a genuine sense of "entitlement," believing that members of his generation are the "legitimate heirs" to the revolutionary achievements of their parents and therefore "deserve to rule China."



#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덩싱하오 상하이 미국 연구소장

시진핑의 지방 행정에 대해 노자의 이념인 無爲而治<자연에 순응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지다>라고 평가했다

신중한 성격(튀거나 나서지 않는다), 부드럽고 순한 인상

평가절하하기 쉽다

화려한 카리스마는 없지만 당정군의 다양한 계파와 권력집단을 하나로 모으는 데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



#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시장을 지향하는 국가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 시진핑 핵심 확정. 시진핑 사상 추진  
(시진핑 사상을 당헌, 헌법에 넣을 것으로 예상)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지도자로 부상



## 제 2부

#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 제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 1. 정치안정을 위한 권력승계방식

- 격대(대를 건너 뛰는) 지명 방식

총서기가 차기 후계자를 지명. 제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는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 제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은 제3세대 지도자인 장쩌민 지명.





# 제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 연령제한 규정

정치국 상무위원은 67세까지는 가능. 68세 이상은 불가능. 정치국 위원은 63세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이 규정은 유명무실. 63세 이상 신임 정치국 위원이 적지 않다



# 제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 • 민주추천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을 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 전국인대 정협 간부가 추천해서 이를 전현직 지도부가 논의하는 방식.  
최종 인선은 중앙위원회가 확정

냉온탕(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20년 이상 양성한 인재풀을 철저하게 활용(서방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벼락 출세는 없다).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제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 2.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 회의

- 해마다 7월말이나 8월초 허베이성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전현직 지도부가 모여서 비공식 회의(공식적인 발표가 없음. 브레인 스토밍 회의)
- 2017년은 8월2일 개막해서 8월13일 끝난 것으로 추정(베이다이허 일대 경계 태세로 가름)



###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개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이상 최고지도부와 당 원로 등이 여름 휴가철에 베이다이허에 모여 주요 국가 현안, 당 노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

**개최시기** 매년 7~8월 중 10~20일간

**개최장소** 허베이(河北)성 칭황다오(秦皇島) 베이다이허(보하이만 연안)

**연혁** 1958년 시작. 1987년부터 연례회의로 결정됨.

# 제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 2.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하 회의

- 올해는 11월 열리는 19차 당대회 지도부 인선, 시진핑 사상의 당헌 편입, 북핵 문제를 놓고 지도부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
- 장쩌민 전 주석(1926~)이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시진핑으로는 호재





## 제 3부

#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 관전포인트

- 11월8일 개막 전망. 회의는 1주일 정도
-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진핑. 리커창을 제외한 5명 교체 예상)

### Standing Committee



**Xi Jinping** 63  
President



**Li Keqiang** 61  
Premier



**Zhang Dejiang** 70  
Chairman,  
National  
People's  
Congress



**Yu Zhengsheng** 71  
Chairman,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Liu Yunshan** 69  
Secretary,  
Central  
Secretariat



**Wang Qishan** 69  
Secretary,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Zhang Gaoli** 70  
Vice Premier

#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1.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1948~)가 유임할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



#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 관전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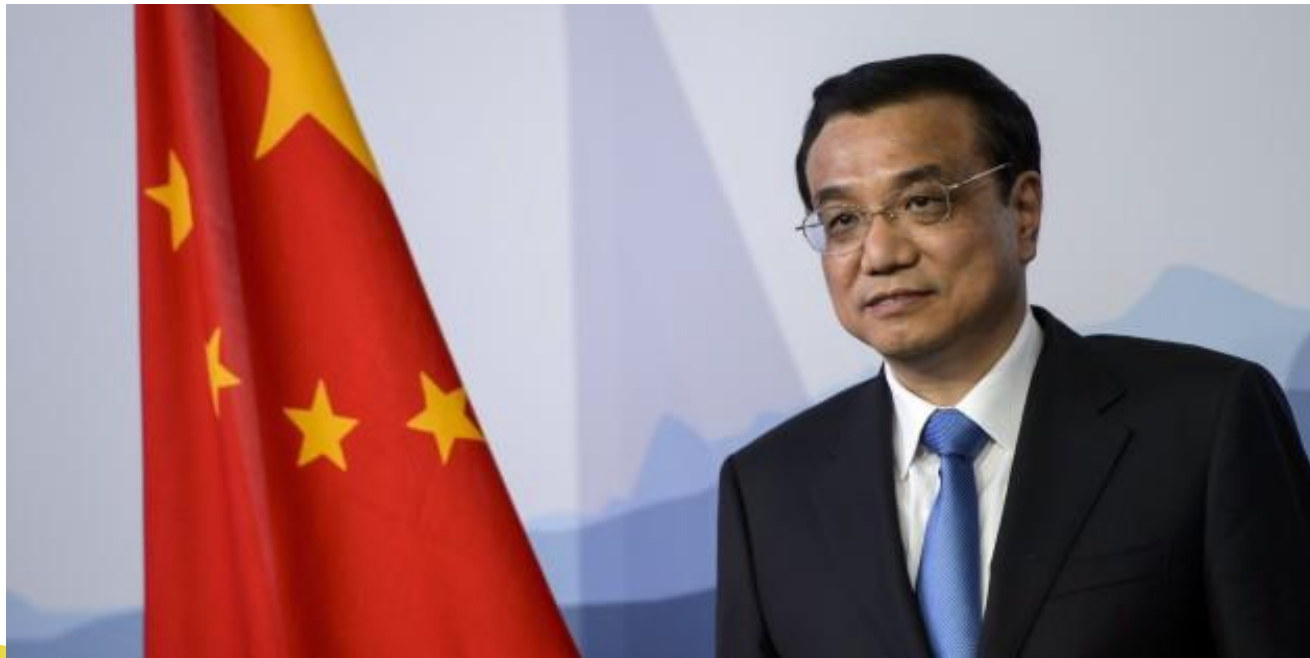
1.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1948~)가 유임할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 → 유임 예상

- 왕치산 서기. 그동안 반부패 투쟁 주도. 당내 반대파가 많아 유임만이 유일한 살 길
- 시진핑 주석도 반부패 투쟁 마무리를 위해 왕치산 서기의 도움이 필요
- 다만 68세 이상이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불문율이 걸림돌



#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 2. 총리가 바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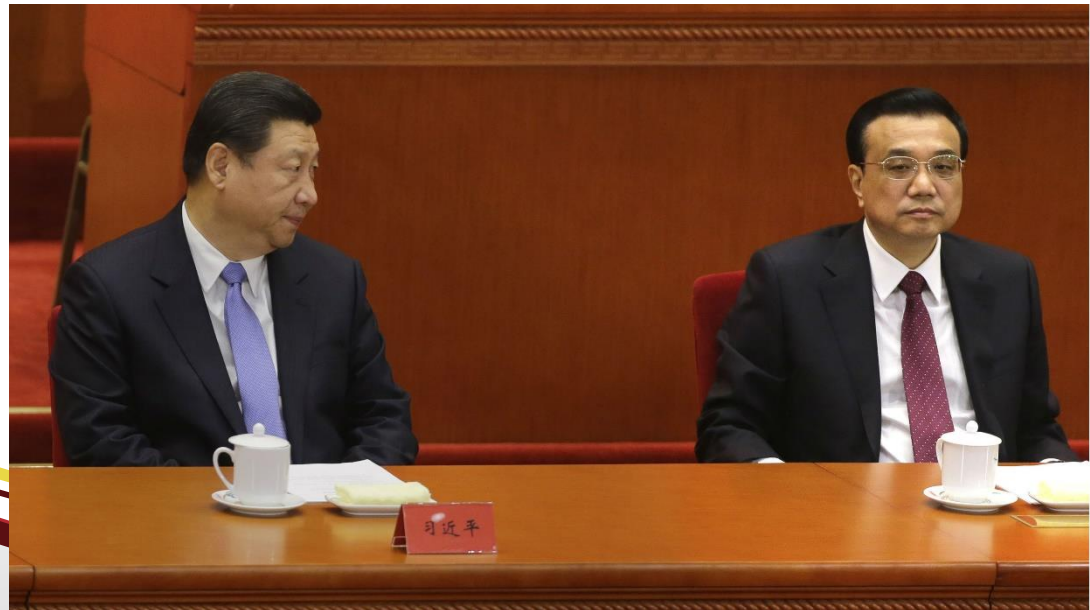


#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 관전포인트

### 2. 총리가 바뀔 것인가 → 유임 예상

- 시진핑 독주로 리커창 총리의 존재감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왕치산이 유임하면서 총리로 기용될 가능성 대두. 교체 가능성 낮다(공청단의 지지)



#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 관전포인트

3.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헌에 들어갈 것인가.  
헌법에 들어갈 것인가.

- 시진핑 사상이 이번 당대회에서 들어갈 가능성 높다. 헌법은 내년 3월 전국인대에서 개헌을 통해 들어갈 가능성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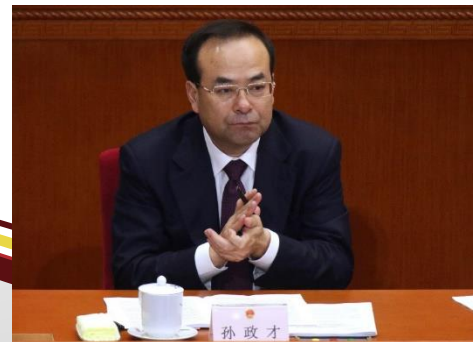


#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 관전포인트

### 4. 차세대 지도부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 이번 당대회는 차기 제6세대 지도부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
- 6세대 지도부 선두주자인 후춘화 광둥성 서기(1963~)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것인가가 관건.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반반
- 당초 후춘화, 쑨정차이가 둘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경우 이번이 없는 한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후춘화는 총서기, 쑨정차이는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



#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 관전포인트

### 4. 차세대 지도부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 하지만 쑨정차이 충칭직할시 서기가 비리혐의로 낙마하면서 권력 판도가 새롭게 편성될 것으로 전망
-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왕치산 서기,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한정 상하이 서기, 왕양 부총리가 유력. 이럴 경우 후춘화 서기는 탈락
- 정치국 상무위원을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시진핑 권력 공고화의 일환





#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 관전포인트

### 5. 당 주석이 부활할 것인가.

- 현재 중국 공산당 1인자는 총서기. 하지만 과거 마오쩌둥은 당 주석을 맡은 바 있다
- 시진핑이 총서기로 있을 경우 2022년 물러나야 한다는 게 고민
- 사실상 종신제인 당 주석을 부활할 경우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 건군절 열병식에서 군인들의 인사가 서우장하오(首长好)에서 주시하오(主席好)로 바뀐 것도 당 주석제 부활의 신호탄



감사합니다